

# 李陸史 詩의 構造 考察

崔 美 汀\*

## I. 序

李陸史에 대한 정리가 「나라 사랑(1974. 16호)」에서 이루어진 이후, 육사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쌓여져 왔다.

최근의 논자들은 저항시라고 일컬어지는 시들에 대해 “시의 탁월함과 신념의 탁월함을 일치시키는 경향”<sup>1)</sup>을 반성하고 “그 시작품에 담긴 모든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sup>2)</sup> 연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고가 육사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들과 같은 생각에서이다. 즉 아름다운 抒情詩로도 읽힐 수 있는 육사의 시들에서 시적인 특질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에서부터, 본고는 육사시가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詩的 整型性의 문제와 해석의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육사시의 정형성(整型性)에 대한 것은 거의 모든 논자가 언급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sup>3)</sup>와 부정적인 견해(형식에 대한

\* 啓明大 國文科 助教授

- 1)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의 人間, 創批社, 1982. p. 77.
- 2) 尹永川, “李陸史文學의 재검토”, 한국학논집 VII,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3. pp. 194-5.
- 3) 鄭漢模, “육사시의 특질과 詩史的 의의”, 나라사랑 16집(이하 나라사랑이라 칭함), 1974.  
曹敎煥, “李陸史와 超克의지”, 韓國現代詩史研究, 一志社, 1983.

무관심)<sup>4)</sup>로 양분되는 듯 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반대의 방향에서 접근하여 整型을 보이지 않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육사의 詩形式에 대한 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 육사시의 해석의 다양성은 많은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 개의 예들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본고는 소박한 讀解와 감상에서 출발하여 육사의 시정신에 접하고자 할 때,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그의 시에 나타난 독특한 언어사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하여 그 용례를 분석하며, 아울러 이들의 시적인 효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무엇보다도 육사 시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작품들에 대한 분석 위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에서 언어지는 詩學的인 관점에서의 結論과 아울러 그의 시를 감상함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그의 시정신에의 共感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 II. 整型性和 詩의 構造

「나라 사랑」에 재수록된 그의 시에서 구성상의 整型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 2행 단위 : 12편

湖水·南漢山城(3연), 絶頂·日蝕(4연), 鴉片·斑猫·小公園(5연), 靑葡萄·子夜曲(6연), 芭蕉(7연), 年譜(8연), 狂人の 太陽(3연)<sup>5)</sup>

b) 3행 단위 : 9편

喬木·春愁三題·바다의 마음(3연), 路程記·曠野(5연), 나의 뮤즈·獨白·娥眉(6연), 少年에게(7연)

c) 4행 단위 : 4편

4) 金允植, “白馬와 絶頂과 詩”——陸史의 새 作品, 韓國現代詩論批判, 一志社, 1978.

5) 「狂人の 太陽」은 「나라사랑」에는 單聯詩로 되어 있으나, 金允植교수가 앞의 논문에서 원재제지와 비교에 의해 바로 잡은 바, 2행 3연으로 분류한다.

꽃(3연), 失題(4연), 黃昏(5연), 海潮詞(9연)

이외에 草家(5.5.5.3.2행), 江 건너간 노래(3.3.3.2.3행),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2.3.4.3.2.4.3.2행), 편복(8.6.7.5행)의 非整型의 詩와 散文詩 2편(서울, 邂逅) 및 單聯詩 西風<sup>6)</sup>이 있다.

이와 같이 몇 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들이 일정한 行數로 구성된 연들로 이루어져 整型性을 보이고 있는 의도에 대해 “일정한 休止部를 반복하여 이미지와 이야기 사이에 의도적인 단층을 마련하고 있다.”<sup>7)</sup>는 지적과 아울러 이러한 整型의 형태구조는 “질서예의 의지와 운율적 감각, 호흡과 의미의 계획적인 단층을 마련함으로써 그 서술성을 규제하고 시적 긴장미를 유지하려는 노력”<sup>7)</sup>이라 간파될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整型性을 벗어난 몇 안되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대비·고찰하고자 한다.

월달에도 보름계 달 밝은밤  
 앞 내스江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르던 노래는 江 건너 갔소  
  
 江 건너 하늘끝에 沙漠도 다은곳  
 내노래는 제비같이 날려서 갔소  
  
 못잊을 제집이나 집조차 없다가  
 가기는 갔지만 어딘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사불에 떨어져 타 죽겠소  
  
 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밤은 옛시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가락 여기두고 또 한가락 어메멘가

6) 「西風」은 「나라사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三千里」 1940.10에 실린 것이다. 全文은 智識産業社, 韓國現代詩大系 8, 「李陸史·尹東柱」에 수록되어 있다.

7) 조창환, 앞의 논문, p. 335.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江 건너 갔소

—江 건너 간 노래<sup>8)</sup>—

별로 주목되지 않았으나 이 시는 육사의 詩精神의 兩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日常의 영위와 日常의 포기 사이에서의 갈등과 각오를 “밤”과 “노래”라는 두 사물에 투영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의 중요한 요소인 “밤”과 “노래”는 둘 다 이중성을 띠고 있어 詩의 의미 영역을 넓혀주고 있다. “밤”은 5연의 “그 밤” 다시 말하면 “달 밝은 밤”이면서도 “앞 내스강 짹 짹 열어 조이던 밤”으로 표현되는 決斷과 轉換의 사건을 가져올 순간이기도 하며, 4연의 “눈물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에서 처럼 日常을 안타깝게 돌이켜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노래”의 의미나 위치 또한 이중적이다. “못잊을 제집애나 집조차 없다가／가기는 갔지만”의 주체는 노래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강 건너 사막”이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의 땅, 회상의 空間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곳을 “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회한과 미련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를 “못잊을 제집애나 집조차 없다가”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지개보다 고운 옛일을 극구 부정하려는 노력의 발언이기에 “이곳”은 단순한 地理的 限定이 아니라 “죄와 걸드려도 삶 죽한 누리(鴉片)”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곳”에 대한 포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련은 “그 밤”에 대한 회상에 의해 강력하게 부정되고 각오로 바뀐다. 이 각오는 3연의 비장한 결의에서 보다 4·5연의 미묘한 行배열에서 오는 미묘함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4연과 5연의 행배열은 “의미와 이미지의 단층”을 위해서라면,

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눈물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밤은 옛날을 무지개보다 붉게 짜내나니

8) 이하의 작품인용은 「나라사랑」에 수록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전과 비교되는 것은 원전을 인용 附記한다.

한가락 여기두고 또 한가락 어디엔가 /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江 건너 갔소(加點필자)

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4연과 5연은 현재 : 과거, 회상 : 작으로 그 의미나 時空의 배경에 있어 분명한 구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육사는 이를 2/3行으로 배치하여 4연의 이미지를 5연에 덧붙임으로써 갈등의 고조와 극복의 의연함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그렇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않은 채로 있으려하는 용기를 5연의 복합된 詩行으로써 감동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앞에서 지적한 “나(노래)의 이중성” “밤의 이중성”의 설정과 더불어 육사의 이시가 전반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갈등과 작오”<sup>9)</sup>를 한 행간에 축약시켜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검토는 육사가 그의 整型的 습관<sup>10)</sup>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충분히 숙고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바 그의 정형성은 분명한 시적 구성을 얻어 이룩된 것임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과 같다.

그의 詩型에서는 독특한 예인 散文詩 두 편을 통해 같은 논의를 전개해 보자.

- ① 모든 별들이 翡翠階段을 나리고 풍악소래 바루 조수처럼 부푸러 오르던 그밤 우리는 바다의 殿堂을 떠났다.
- ② 가을 꽃을 하직하는 나비모양 떨어져선 다시 가까이 되돌아 보곤 또 멀어지던 흰 날개우엔 별스살도 따겁더라
- ③ 머나먼 記憶은 끝없는 나그네의 시름 속에 자라나는 너를 간직하고 너도 나를 아껴 항상 단조한 물결에 익었다.
- ④ 그러나 물결은 끝끝내 흔들려 끝끝내 보이지 않고 나조차 季節風의 넋이 가치 휩쓸려 정치못 일곱바다에 밀렸거늘
- ⑤ 너는 무삼일로 沙漠의 公主같이 연지찍은 붉은 입술을 내 근심에 漂白된 꽃대에 거느노 오—안타까운 新月

9) 鄭漢模교수는 이를 “男性主義的 克服의 詩學”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金與圭교수는 “소모된 외부, 어두운 표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비극적 자기회인”이라 하였다.

10) 조창환, 앞의 논문, p. 333.

- ⑥ 빠른 너를 불러 꿈마다 눈덮인 내 심속 透明한 玲路으로 세운 집안에 머  
리 켜 알음을 黃金 項鎖 足鎖로 매여두고  
⑦ 커스밤에 우는 구슬과 사슬 끊는 소리 들으며 나는 일흠도 모를 꽃발에  
물을 뿌리며 머— 다음 날을 빌었더니  
⑧ 꽃들이 피면 향기에 醉한 나는 잠든 틈을 타 너는 온갖 花瓣를 따서 날개  
를 붙이고 그만 어디로 날려 갔더니  
⑨ 지금 놀이 내려 船窓이 故鄉의 하늘보다 둥글거늘 검은 망토를 두르기는  
지나간 世紀의 喪章갈애 슬프지 않은가  
⑩ 차라리 그 고은 손에 흰 수건을 날리렴 虛無의 分水嶺에 앞날의 旗발을  
걸고 너와 나와는 또 흐르자 부끄럽게 흐르자

—邂逅— (번호 원자)

“육사 시에는 戀歌가 없다”는<sup>11)</sup>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순수한 연가로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하다. “斑猫”와 “邂逅”는 그 영원한 연인에게 준 꽃다발이다”라는 申石岬씨의 언급<sup>12)</sup>이 없더라도 이 노래는 연인과의 이별(1.2행) —이별 후의 자신의 상황(3행) — 그간의 변화에서 오는 邂逅 이후의 상대방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그 裏面의 진정한 욕구(4.5.6.7.8행) — 둘의 관계에의 결단(9.10행)을 노래한 연가이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이 작품이 육사의 시 일반이 구조의 튼튼함을 얻고 있는 行의 정형성을 갖고 있지 않은 대신, 내부에 견고한 구조를 쌓기 위해 起—承—轉—結의 구조를, 그것도 轉안에 다시 起—承—轉—結이 들어가는 二重的인 견고함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起—1·2행 承—3행 轉—4~8행(起②—6행, 承②—7행 轉②·結②—8행), 結—9·10행으로 나눌 수 있다.

起에서 노래되는 이별은 “비취계단” “풍악소리” 등으로 장식된 이별이다. 이것은 믿음울 가진 자의 이별로서, 이별을 기정사실화시켜 話者 속에 그것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가꾸고 간직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된다. 2연에서 “가을나비”의 이미지는 어쩔 수 없는 悲哀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정경이나, 承에서는 이렇게 간직한 이별의 기억은 회상 속

11) 조창환, 앞의 논문, p. 349.

12) 申石岬, 이육사의 인물, 나라사랑, p. 105.

에서 자라나고 이별 후에도 변함이 없어 “너를 간직하고 너도 나를 아껴” 서로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노래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조한 물결”이라고 암시한 바에서도 느껴지듯 轉變의 순간을 맞게 된다. 4연의 서두에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逆轉은 결국 狀況을 변화시키고 “나조차 정치못”하는 위치에 처하게 만든다. 이때문에 상대방이 간직한 나에게 대한 기대를 “무삼일로”라 하며 구태여 외면하고자 하나, 아무리 고의적으로 외면하려해도 어쩔 수 없는 연민을 숨길 수는 없다. 해후한 연인의 모습은 “新月”과 같이, “사막의 공주”와 같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마는 것,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轉變의 상황은 꿈 속에서만 용감해 질 수 있고 솔직해 질 수 있다. 아무리 외면해도 戀人에의 기대는 반가운 것이고, 자신의 솔직한 소망은 상대방을 잡고 싶은 것이다.

6행부터 8행까지는 자신의 진실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꿈 속에서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 “때론 너를 불러” “꿈마다” 시인은 자신의 벌거벗은 욕망을 추구한다. 6행에 보이는 eros의 표현은 그의 시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나 시인의 갈망은 연인을 黃金 頂鎖 足鎖로 묶어 놓고 싶은 정도로 강렬하다. 연인을 가두어 간직하고 “먼 다음 날을 바라고” 싶은 욕망은 꽃밭을 가꾸는 심정과 같은 것이나(承② -7행)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에서조차 그러한 갈망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시인이 가꾼 “꽃”이라는 설정은 역설적 표현으로서 의미심장하다.

애써 가꾼 꽃이 피자(轉), 나는 잠이 들고, 그 잠의 틈을 타 戀人은 온갖 花瓣을 날개로 하여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만다(結②). 이 “꽃”은 이를 수 없는 모순의 상징이다. 나의 희망이면서 동시에 너의 도피의 수단 즉, 희망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희망과 절망의 dilemma인 꿈의 核心 이미지로서의 이 꽃을 가꾸면서 시인은 “귀스밤에 우는 구슬과 사슬 끊는 소리 들으며”에서 보듯, 계속해서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이와같이 육사는 起承轉結의 구조 중 轉 속에 다시 起承轉結②의 구조를 삽입시켰다. 이 후자의 起承轉結②는 꿈의 구조이며, 이를 통해 이후의 방향을 암시한다. 꿈이 豫言的 機能을 가졌음은 주지의 사실이

듯이, 이 꿈을 통해서 시인은 희망과 절망의 딜레마에서 미래를 암시받는다. 그러므로 9·10 행에서는 꿈에서 깨어난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은 꿈에서豫期된 바 있으나 이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차라리 그 고운 손에 흰 수건을 날리렴 虛無의 分水嶺에 앞날의 旗발을 걸고 너와 나와는 또 흐르자 부끄럽게 흐르자”를 斷切感과 漂浪意識이라고만 보는 견해<sup>13)</sup>로서는 不安을 豫期하고 이를 준비하려는 자의 용기있는 자오를 감지하기 어려울 듯 하다. 여기에서의 “부끄러움”은 운명 앞에서의 겸손, 不安한 미래를 앞에 둔 연인에 대한 안스러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虛無의 分水嶺을 정복하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운명을 맞아 들이겠다는 신선한 자오인 것이다. 이것은 육사 시를 관통하고 있는 그의 詩精神인 바 喪失 혹은 갈등과 이의 극복을 보여주는 건전한 시정신의 표현인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것처럼 그의 詩 構造는 단단한 骨格 위에 전개되어 있다. 起承轉結의 구조가 그의 시에 傳統性을 부여한다<sup>14)</sup>는 견해는 여러 번 지적되어 온 바, 이 시에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整型을 유지하지 않은 作品에서는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劇的 緊張을 유도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散文詩인 「서울」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장치들을 지적할 수 있다.

- ①어떤 시골이라도 어린애들은 있어 고놈들 꿈결조차 잊지 못할 자랑 속에  
피어나 황홀하기 薔薇빛 바다였다.
- ②밤마다 夜光虫들의 고향 불아래 모여서 영화로운 잔치와 설새없는 諧調에  
따라 푸른 하늘을 피웠다는 이야기.
- ③원 누리의 심장을 거기에 느껴 보겠다고 모든 길과 건들 피줄같이 엉클여  
서 驛마다 느릅나무가 늘어서고.
- ④긴 세월이 맴도는 그 판에 고초먹고 맴—맴 쫓లే먹고 맴—맴 너머지면 「밤  
모스」의 骸骨처럼 흐르는 燐光 길다랗게.

13) 김홍규, p. 94.

14) 金允植, “絕命地的 꽃”,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pp. 251-4.



⑤개아미 마치 개아미다 젊은 놈들 겁이 잔뜩나 참아 참아하는 마음은 널  
원망에 비겨 잊을 것이었다 깝쟁이...

⑥언제나 여름이 오면 황혼의 이 빨다귀 저 빨다귀에 한 줄식 걸쳐매고 짐  
것 창공에 노래대는 거미집이다 텅 비인.

⑦제발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케케묵은 문지를 눈보래마냥 날려라 녹아내리  
면 개천에 고놈 살무사들 승천을 할년지

—서울—(번호 필자)

「서울」의 첫 행은 웃음이라도 머금고 썼음직한 다정스런 애착과 아픔  
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시작된다. 전체구조로 보아 「서울」  
은 서울: 시골의 이미지 대립이다. 시골의 바람직한 世界像은 단 두 행  
(①②)에 압축되어 있으나 이미 그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그의 제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꿈결조차 잊지 못할 자랑 속에 피  
어나”는 시골은 어디에라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의 구문은 “어떤  
시골이라도 어린애들은 있어”이므로 어린애들이 도처에 있다는 의미이  
나, 이것은 “어떤 시골”이라는 지적 속에 서울의 唯我獨存格인 존재에  
대비되도록, 시골은 어디에나 있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식은 3행에서 “원우리의 심장을 거기에 느껴보겠다고 늘어선” 群  
像들을 조소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천으로 널려 있는 보  
물을 알지 못하고 서울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한 듯이 물려드는 인간들  
은 감춰진 보물을 볼 수 있는 眼目을 가진 자에게는 혐오스럽게 느껴지  
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난장판 속에서 “고초먹고 맴-맴 질레먹고 맴-맴”으로 표현된  
순수한 抒情의 세계는 통하지 않는다. 서울의 이러한 모습은 “맘모스의  
骸骨처럼 흐르는 磷光”으로 표현된 바 “夜光虫의 고훈 불”과 대비되어  
선명한 의미를 획득한다.

한편, 더욱 중요한 것은 “고놈들 꿈결 속에 잊지 못할 자랑 속에 피  
어나”로 간직된 “어린애들”로 표현된 건전한 「젊은이」<sup>15)</sup>와 기회주의적

15) “...이 소설의 1편은 ‘어린이를 구하자’는 말로서 끝을 맺었다. 실로 이  
한 말은 당시의 ‘어린이’인 중국청년들에게...”(이육사, 魯迅論, 나라사랑,  
pp. 179-180)라는 언급을 상기할 때 “어린애들”이란 용어는 “젊은이”의 의  
미로 쓰여졌다고 파악한다.

이고 안전주의적인 “개아미”, 허위의식의 소유자인 “살무사들”<sup>16)</sup>로 표현된 “젊은놈들”의 대비이다. 같은 청년에 대해 「어린애들 : 젊은놈들, 장미빛 바다 : 살모사·개아미」로 대립시킨 시인의 감정을 헤아리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표현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對立雙은 「영화로운 잔체와 설새없는 諧調 : 텅비인 거미집, 푸른 하늘을 찌하는 모임 : 개천에서의 불가능한 昇天」 등으로 계속된다. 말하자면 이 시의 기본은 이런 이미지의 對立인데, 이것이 만약 외형으로도 쉽사리 짐작되는 整型구조 위에서 시도되었다면 이 시는 상당히 경직된 작품이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구조가 특히 두드러지고 (1·5행) 문장의 도치가 심한 것은 작품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의 二分化和 對立雙을 적절히 해체하여 배치시킴으로써 詩想의 variety를 꾀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자랑스러움과 긍지에도 불구하고 시골은 이미 이야기 속의 세계임을 긍정하는 것은 육사의 漂浪意識, 나그네의식과 통한다. 그럴 때에도 그 나그네의식에 함몰하지 않고 건전한 비판의식과 판단력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육사의 詩精神의 뛰어난데, 5행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개아미 마치 개아미다 젊은놈들 겁이 잔뜩 나 참아 참아하는 마음은 널 원망에 비겨 잊을 것이었다 작쟁이...”라는 이 시행은 해석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육사의 시에서 종종 발견되는 의미의 다양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첫째로, “~마음은~ 잊을 것이었다”의 문장구조는 의미상으로는 “~마음때문에 널 잊게 만든다.”라는 구문이 된다. “~마음”의 주체는 젊은 놈들이기에 “있다”의 주어인 話者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널(너)”이라는 대명사의 지칭대상인데 여기에서의 “너(널)”는 “비기다”라는 동사의 목적이며 동시에 “있다”라는 동사의 목적 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비기다”의 목적이 되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너” 보다는 “너”에 관계되는 감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말하자면, “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비겨 너를 잊을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16) 尹永川, p. 86의 용어.

것이 타당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움”이라 표현한 것은 아마 진정한 그리움은 되지 못할 것이다. 필요한 것들임을 되도록 긍정하고 싶은, 즉 자기에게 주어지는 처지를 되도록 긍정있게 받아들이고 싶은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이 그토록 환멸스런 곳이기에 간단할 수 없다.

나라는 사람의 서울에 대한 감정이란 또 남달리 멜리컷한 것이 있어 그다지 수월한 것이 아니란 것은 마치 명가집 자식이 성격에 못 맞는 결혼을 하고 별거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있어 때때로 본가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그때의 심경과 방불한 것이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술집에도 들어서 얼른 하게 한 잔 하고 오듯이, 나 역시 서울이 가까와지면 슬쩍 옆길로 들어서서 한참 동안이라도 딴 청을 떠보는 것인데……<sup>17)</sup>

라는 글에서 느껴지듯,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할 수 없어, 되돌아 오려면 의도적인 우회를 해야하는 괴로움을 그는 간단히 떨치지 못한 다. 그러면서도 대상을 그 가치 여하와 무관하게 억지로 사랑하려는 안일한 虛僞意識을 철저히 배격하고 냉정히 자신을 가다듬는 육사의 詩精神을 여기에서 보게된다.

세째, 이렇게 해석할 때, 일견하면 젊은 놈들=넌(너)=각쟁이로 읽게되는 이 구문의 지칭대상은 좀 다를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너”라는 대명사는 “서울”과 “서울의 젊은 놈들”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은 첫째 항에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의 주체가 어린애들과 시골 들 다닐 수 있음을 보이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장 구조는 다분히 고의적인 애매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의 시의 또다른 특징인 바, 뒤에서 자세히 논의 될 것이다.

이상에서 그의 시구조의 견고함과 整型性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의 整型性의 성공적인 의미는 여러 논자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이것을 벗어난 시들의 의미는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정형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육사가 가지고 있었던 詩形式에 대한 감각과 세련을 찾아내어 共感하는

17) 이육사, 山寺記, 나라사랑, pp. 225-6.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총동:억제/총동:억제/총동:억제의 반복되는 대립구조로 이루어진 2행 3연의 「湖水」와 「서울」의 대립구조를 비교해 볼 때, 整型性을 벗어난 그의 詩作 意圖 및 成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整型性이 그 시의 成功的인 기본구조가 되어 있는 또 다른 시편들에 대한 감상 역시 의의 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몇 편 작품의 분석에서 공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의 詩精神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대한 명백한 자각과 애착에서 그의 詩 및 그의 행동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과거요 고향이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가버어 여기지 않는다. 또한 현실의 무기력함과 거기에서 오는 환멸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지도 않거니와 이것을 위장된 환상에 의해서 무조건 수용하려는 거짓 사랑을 보지도 않는다. 그의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인간적이면서도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애정의 직시인 것이다.

### Ⅲ. 詩語의 特性

詩의 언어는 科學의 언어와는 달라서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상상공간이 바로 시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육사의 시중 「광야」의 “—들렸으랴, —뿌러랴”의 축약형이 주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다른 여러 논자들에 의해 분분한 논의를 일으켜 왔음을 보는 바이지만<sup>18)</sup> 필자의 견해로는 이들은 육사의 시에 광범위하게 드러난 독특한 언어사용의 한 예일 뿐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서 연유되는 해석의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연구는 과묵한 탓인지 아직 없는 것 같다. 구문상의 애매함이나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서 오는 의미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앞의 논의에서도 몇 편의 시 분석을 예로 들어보인 바 있으나, 이제부터의 논의는 의미의 소통을 방해하는 사소한 단어 사용에서부터 복잡한 통사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에서 쉽게 지적될 수 있는 예들을 지적하여, 그의 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18) 김종길, 육사의 시, 나라사랑, pp.76-77 및 尹永川, 앞의 논문, p.191 이 서로 다른 견해의 대표적 예이다.

## (1) 난해한 詩語의 사용

육사의 시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단어를 곧잘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을 지도 모르나, 필자의 견해로는 난삽하고 희귀한 詩語의 사용은 고의적으로 그 시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적하고자 한다.

장미찌 이고 장미찌 홀으시고(娥眉)  
 그넘어 비답이 보리밭해 두고은(小公園)  
 새로운 地球엔 단罪없는 노래를 眞珠처럼 훑치자(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肝臟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年譜)  
 높대보다 높다란 어께(獨白)  
 떠서는 날잡는 사복이 됴세(獨白)

등은 몇 개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육사의 이런 경향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상상 가능한 대응의미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답이—비달기(전남 방언), 단罪—斷罪(?) 등의 의미는 그런대로 풀린다 하더라도, 素月詩의 경우 와전과 誤釋을 거듭해 와 원래의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작품들이 수다함을 지적한 연구를 본 바 있거니와,<sup>19)</sup> 그러한 오류가 쌓이기 전에 육사 시에서 자주 눈에 띄는 이러한 정체불명의 어휘들은 그것들이 전체의 의미에 核心이든 아니든 세심한 주의와 광범한 자료를 통해 정당한 의미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상당히 신경 쓴 묘사라고 생각되는 “장미찌 이고 장미찌 홀으시고”의 경우 경상도 방언에서 식물을 자를 때 “찌다”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예 ; 싸리찌다—싸리나무를 자르다). 이를 완용하여 “장미를 잘라 이고 장미를 잘라 홀으시고”로 본다 할 때 어느 정도 의미의 소통은 이루어진다 하나 명쾌한 어석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명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獨白」에서 “사복”이라는 단어의 경우, 상당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고찰할 수 없었다. 이를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육사의 산문 중, “더구나 가을 밤 서울 하늘에는 너무나 깨끗이 개인 하늘이라 별조차 날수가

19) 李基文, 素月詩에 대한 考察, 관악어문 제 2집, 서울대 국문과, 1977.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하이네가 본다면 황금 사복(鎡)을 훌어놓은 듯하다고 감탄을 할지도 모르겠소”<sup>20)</sup>에서 같은 단어의 한자표기가 보이기는 하나 鎡(일본한자)=釘 즉 “못(넓은 못)”이라 하니 의미의 연관이 석연치 않다. 이를 부채살을 죄는데 쓰는 “사복”이라 보아도 의미는 모호하다. 또한 「年譜」에서도 “肝입”이라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지의 想起는 상당히 다른 각도로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 많지 않은 시를 남긴 육사의 시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예들은 誤植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이 때문에 그의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의 정도가 저해될 뿐 아니라, 그 시기에 이미 토착어의 세련된 구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素月 등에 비교할 때, 육사의 詩語에 대한 관심을 달리 평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결코 사소하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誤植을 바로잡는 직업과 아울러 경상도 방언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언어학도 및 문학연구가의 공동관심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2) 축약형의 의미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이 그의 詩語에서 가장 빈번히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축약형이다. 몇몇 자주 거론되는 예 외에도 쉽게 들 수 있는 예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넋이 가치 휩쓸려 정치못 일곱바다에 밀렸거늘(邂逅)  
 한번도 가야 싶은 날이 없어(나의 류-즈)  
 젊은 女人들의 잡아뭇는 소매 끝엔(파초)  
 다만 한봉오리 피려는 장미 벌레 흠치렀다(일식)  
 서리스발 입저도 못오면 바람이 분다(草家)  
 오랜 나달 煙硝에 끄스른(狂人の 太陽)  
 이땀 타는 입술을 축여주렴(파초)

이러한 축약형은 用言이든 體言이든 언어의 경제적 사용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서리스발 입저도”에서 보여주는 앞에서

20) 이육사, 계절의 5행, 나라사랑, p. 209.

리가 지는 풍경과 이미 없이 다 저 버린 광경의 중첩이라던가, “잡아못  
는 소매 끝엔”이라는 표현이 주는 동작의 지속적 효과는 짧은 시구 속  
에 함축된 의미의 풍부함을 한층 더해주는 예들이다.

이처럼 그가 즐겨쓰는 축약형은 그의 整型된 詩型에 어울리는 압축된  
언어의 사용이며, 詩語의 발굴과 조탁이라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역시 그의 시에 의미의 다양성을 일으킨  
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너는 돌다리목에서 쥐었다.」든

할머니 편잔이 참이라고 하자

나는 진정 江 언덕 그마일에

버려진 문반이였을 줄 몰라

그러기에 열서넛 새봄은

버들피리 곡조에 부러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港口의 밤

눈물섞어 마신술 피보다 달드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했나?

바람에 부쳐 돌아온 고향도 비고

서리밟고 걸어간 새벽길 우에

肝입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해도

쇠사슬을 잡아맨듯 무거워졌다.

눈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레이며 파랗도 불지

一年譜一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를 몇 행의 시로 표현하기 위해 이 시는 行間에 고도의 생  
략과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탄생울 애기한 1·2연과 靑春의 기록인 3·4  
연, 그리고 서거를 歸鄉의 現時點을 노래한 5·6·7연에 이어 8연은 시

간의 제한을 초월하여 이러한 年譜의 배경이 될 자신의 人間觀·世界觀의 根底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은 각각 압축된 몇 마디의 詩語인데 3행의 “그러기에”라는 단어는 문빈이의 탄생이 豫期하고 준비하는 고단한 그의 청년기를 연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단어이다. 말하자면 幼年期와 青年期는 마치 因果관계이듯 연결되어 있어, 그의 청년기는 당연히 눈물과 피의 맛을 “달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신난한 것이었다. 그러한 그가 귀향하는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하는 시행의 의미가 그것인데, 이것 역시 사뭇 모호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 애매함은 “마다곤들”이란 단어가 가지는 구조적 重義性(structural ambiguity)과 과도히 생략된 통사구조때문이다. 이에 가능한 의미들을 상상해 보면,

S<sub>1</sub>① 공명이(나를) 마다고 한들 언제(내가)(좋다고) 말이나 했나?

② (내가) 공명이(=공명을) 마다고 한들 언제(내가) 싫다고 말이나 했나?

S<sub>2</sub> (내가) 공명이 마다고인들(싫다고는) 언제 말이나 했나? 등이라 할 때, “마다곤들”의 의미는 ①마다고 한들 ②마다고인들(마다고는)의 두가지가 다 가능하다. 아울러 문장 구성에 있어서도 功名이 나를 싫다고 하는 것(S<sub>1</sub>①)과 내가 功名을 싫다고 하는(S<sub>1</sub>②, S<sub>2</sub>), 극히 相反된 의미가 이 시행은 가능케 한다. 만약 첫째의 의미라면 그의 과거사는 흔히 얘기하는 志士로서의 삶을 뜻하는 것이리라. 즉 세속적인 것을 좇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몇몇한 회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때 이어진 詩行들에서 보이는 그의 괴롭고 허탈한 심정은 훨씬 심각성이 더해진다. 도리어 지금의 피곤하고 피로운 심정은 보상없던 情熱에 대한 후회라고까지 하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후자의 의미로 생각하자면, 젊은 시절에 있음직한 世俗的 熱望에 대한 自嘲的인 고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자신도 凡人들처럼 세속적인 열망에서 살았으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헛된 세월로 비쳐진 지금의 심정은 처참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보다 無慾하고 순수한 인간으로만 평가하고 있기에 그의 괴리감과 갈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심정을 그는 고난의 끝에서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淨化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가능성에 따라 “바람”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본다. “바람에 부쳐 돌아온 교장도 비고”에서 전자의 경우 “바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외부의 상황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헛된 열망, 또는 이러한 자아의 내부의 피리에서 생기는 갈등에 의한 피로움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것은, 가능한 의미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한다는 명제를 위해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의 詩行 속에 내재된 의미이기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것을 육사의 생애와 연결시켜 그 중 어느 하나로 고정한다면 우리는 의도의 오류를 면치 못하리라. 이미 여러 논자들이 그의 시세계를 총괄한 논의들을 통해 얻은 결론들이 兩分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니와,<sup>21)</sup>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시정신에 대한 평가의 분분함과 시위가 지닌 이중의 의미가 하나로 묶여지는 필연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어쨌든 돌아온 교장도 비고, 그곳에서의 생활 역시 서리를 밟는 지극히 피로운 심정이라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부담도 그에게는 괴롭고 견딜 수 없도록 그는 극도로 쇠약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진한 詩精神은 새로운 再生과 건강한 인간관을 회복한다. 8연의 의미는 그의 年譜의 허탈함과 우울함을 거뒤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눈우에 걸어가면 자옥이 지리라고/때로는 설레이며 파랗도 불지”에서의 상쾌함은 지금까지의 고단한 풍경을 설레임과 휘파람으로 채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靑年期의 간난함을 가져온 원인이 「그러기에」라는 부사로 붙들어 매어진 유년기와 의 인과관계이기에, 그는 이제 거미줄 같은 因果관계, 말하자면 어떤 인연도 힘에 부칠 정도로 지칠대로 지쳐있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시 “자옥이 지라고” 마음 설레이듯, “자옥”으로 상징된 人間과 人間 사이에서의 유대와 인연은 소중한 것이며 그에 대한 기대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21) 대표적인 견해를 비교하면,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自嘲的인 한계를 떨쳐 버리기 위해 진실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어느 한군데에 스스로를 내맡기지 않는 삶”으로 보는 견해(尹永川, 앞의 논문, p.189)와 “순열한 의지적 자세와 失郷의식의 양극”(조창환, 앞의 논문)으로 보는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가 그 健康性을 유지하기 위해 무책임한 낭만주의 위에서 있지 않기에 그는 “때로는”이란 단서를 잊지 않는다. 이러한 참신한 희망으로 설레이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음을 直視할 수 있기에 그의 희망은 더욱 단단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 고단한 회한의 눈에서 그를 끌어올리는 이따금의 신선함을 잊지 않는 것이 그의 건강성의 動力이며 이러한 再生의 도약을 위해 그는 詩로써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제 자신을 의식했을 때 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悔蔑의 書, p. 174.)”라는 그의 지적은 바로 이 서글픔으로 가득찬 年譜를 쓰게 만드는 중요한 인식이며, “다만 나에게는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뿐이오.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를 생각한다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오. (계절의 5행, p. 214)”에서 보이듯, 詩가 行動과 다름 아님을 보여주는 한 징표가 이 年譜이다.

#### (4) 語尾 사용의 특성

육사가 어미를 다양하게 구사하여 이들의 결합·변주에 의한 함축미와 여운, 어조와 분위기 형성 등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sup>22)</sup> 한편 이러한 행 끝 귀의 어미의 경우 뿐 아니라 시행 중간의 경우도 포함하여 다양한 어미를 활용함으로써 빚어지는 의미의 이중성이 본고의 관심이다. 이러한 예는 상당히 눈에 띄는데 간단한 예로는 다음들을 지적할 수 있다.

달빛은 서늘한 圓柱아래 들시면  
 장미찌 이고 장미찌 흠으시고  
 아련히 가시는 곳 거 어딘가 보이오(娥眉 일부)

여기에서 “보이오”는 “—봐요”의 의미일 수도 있으며, 쓰여진 그대로 “보이오” 즉 “보다”의 피동형일 수도 있다. 전자의 用例는 같은 시의 2행 등에 ‘추실란가봐요’ ‘떨리요’ 등에서 외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도 추측의 의미로 쓰인 듯하다.

그러나

22) 鄭漢模, 앞의 논문, p. 53.

돌아온 제비매 拋射線을 그리며 날려 재재거리는 건(春愁三題)

내 5月的 끝방이 아득도 하니

黃昏아 來日도 또 저 무—른 커넌을 걷게하겠지(黃昏)

등에서와 같은 동사 활용형의 부당한 사용(날려는 “날며”로, 아득도 하다는 “아득도 하나”가 정당한 用例임)은 개성적인 문장구성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생략의 수법에 따르기 쉬운 언어의 주의없는 결합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詩의 공간 확대에 기여하는 경우들을 지적할 수 있다.

「日蝕」에서 “그래서 더 예쁘고 진정 덧없지 아니하냐”라는 구문도 본고의 관점에서는 주목된다. “장미=내 날”로 표현된 “귀중한 것”은 상처받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喪失은 이미 확인되었다. 이 문맥대로라면 “그래서”의 의미는 “귀중한 것이 상처받았기에”라는 뜻이 된다. 즉 “귀중한 것은 상처받았기에 더 예쁘고 진정 덧없지 아니하냐”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상처받았기에 더 예쁘다는 표현은 逆說的 美學이라기 보다는 불행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에 대비하여 극복하려는 그의 건장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진정 덧없지 아니하냐”는 허무함을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이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의미이다. 이를 문장구조로서 살펴보자. 이 문장의 구조는 “~이 예쁘고 덧없다”는 형용사 둘로 된 병렬문이다. 즉 이 문장은 “~이 예쁘다.”(S<sub>1</sub>)와 “~이 덧없다.”S<sub>1</sub>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S<sub>1</sub>·S<sub>2</sub>에 자기 “~아니하냐”를 붙여보면 “더 예쁘지 아니하냐”(S<sub>3</sub>)와 “덧없지 아니하냐”(S<sub>4</sub>)의 두 개로 되는 바, S<sub>3</sub>은 이 시의 주제와 맞으나 S<sub>4</sub>는 뒷시행과 연결되지 않는다. 덧없음은 이미 구체화된 사실이고 이 시의 의의는 이 덧없음을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의 깊이에 있기 때문이다. 덧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데 다른 하날을 얻어/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련다.”라는 새로운 의지에 이 시의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볼 때, 이 시행은 “그래서(진정 덧없기에) 더 예쁘

지 아니하냐”로 도치되어야 적당한 구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위의 시행에서 나타나듯 “그래서”라는 훌륭한 경제적 詩語가 있으므로 “진정 덧없기에”는 설명조로서 굳어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구는 다소 불필요한 詩語임에는 틀림없으나 구태여 배치한다면, 어미의 부정확한 사용에 의한 육사의 原詩行 이상으로 성공적인 시행은 없을 것이다. 육사의 의도가 이에 미쳤든 어쨌든 그의 어미활용에서 오는 애매성이 시에 대한 상상공간을 확대하는 훌륭한 예이다.

「子夜曲」의 경우를 보자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카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뿔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메 강물이 흐르노(흐르느노)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의찬 강가에 드리라(드리노라)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푸르러라)

—子夜曲—<sup>23)</sup>

首尾相關을 이루고 있는 1·6 연의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는

23) 본고의 표기는 원게재지인 文章(1941.4)의 것이고 ( ) 안의 것은 「나라 사랑」의 표기이다. 푸르리라/푸르러라 등의 誤植이나 흐르노/흐르느노, 드리라/드리노라 등의 정정은 시의 의미파악에 중대한 장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다. ‘흐르노’와 ‘흐르느노’의 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드리노라(드리노라)/드리라의 경우는 ‘노’가 감탄의 기능을 가졌음을 생각할 때 함부로 교체할 수 없다.

“푸르러라”일 때와 의미가 현격히 달라진다. “푸르러라”라고 표현하는 시인의 위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추측하는 他郷에서이다.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노/달은 강을 따르고 차되찬 강만에 드리라”에서 보듯 우울한 풍경과 고단한 그림자, 발자취 속에서 나의 유일한 안식은 江과 달이다. 그런데 이들과의 관계는 5연의 어미들에 의해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차되찬 강만에 드리라(“드리라”의 바른 표기)”에 포함된 의미를 보자.

$M_1$ 은 “내가 강의 중심(강말)에 들어가리라(自動)”인 반면,  $M_2$ 는 “차되찬 강의 맘”에 내가 들게 되리라(선택된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시 작품 전체에 유의함으로써 밝혀질 것인데, 화자는 그 자신의 상태를 “江”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외부를 수용할 수 없는 긴박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강에 들어가는 것( $M_1$ )”은 이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나 “강에 의해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 $M_2$ )”은 이에 비하면 소극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물의 외면만 관찰할 때에 해당될 뿐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극적인 용기( $M_1$ )보다는 자연의 순행(강과 달의 관계)을 통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숨막힌 마음)을 극복할 여유와 긴장을 지속하려는 끈기( $M_2$ )가 고달프지만 보다 더 값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凡人에게는 둘 다 힘이 힘든 초극의지의 소산임은 물론이다. 육사의 경우 이들 중 어떤 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주 인용되는 志論에서 우리는 그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겸양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24) “강말”이 띄어쓰기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를 마음대로 “강말”으로 표기하는 것(지식산업사, 한국현대시문학대계 8, 이육사·윤동주, p. 38)은 작품의 올바른 보존을 위해 고쳐져야 하겠으나, 이 시기의 표기에서 띄어쓰기는 과히 중시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리 하겠다.

뿐이오.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나 자신에 회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오. 이래서 나는 내 氣魄을 키우고 길러서 金剛心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소.<sup>25)</sup>

그가 지향하는 金剛心은 이처럼 자기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긴장과 고통을 인내하려는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위의 구문이 갖는 兩義 중 후자 쪽이 더욱 알맞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여러 형태로 포착되는 해석의 다양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사시의 단조로움과 규격성을 깨뜨리고 의미의 심화와 내포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야기되는 애매성은 일종의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육사시에 대한 독자들의 편향적인 해석을 일단 멈추게 하고, 행동과 함께 시를 선택한 그의 내면의 의지를 보다 깊게 생각하게 하여 공감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장치로서 주의깊은 독자에게 제공되고 있음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IV. 小 結

이상에서, 육사시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整型의 문체와 해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그의 시들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의도는 육사가 시로써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단계로서 자주 논의된 성공적인 시편들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잘 거론되지 않으나 그의 시적인 특질이 잘 드러나 있는 시들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의 整型性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까지를 포함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詩的 構圖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도처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언어구성은 어미의 다양한 활용, 혼치않은 詩語의 사용, 명범하지 않은 축약된 통사구조 등 전반에 걸쳐 있는 것임을 보였다. 詩語의 경우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정확한 의미의 확정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어미의 활용과 통사구조의 개성적인 用例는 詩的 空間을

25) 이육사, 제철의 5행, 나라사랑, p. 213.

확대하고 그의 詩精神을 좀 더 文學的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들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각 시의 분석에서 드러난 그의 시정신은 갈등과 고난에 대한 솔직한 시인 그리고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순간에서의 눈부신 決斷과 극복에의 의지라고 파악된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할 점은 그의 轉換과 決斷이 결코 낭만적 환상이나 자기 기만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이 현실에 대한 확실한 注視와 따뜻한 애착 위에서만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抵抗詩로서만 평가받고 읽혀지는 육사의 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자는 최근의 논자들의 의도에 공감하면서 이루어진 작업의 작은 결론으로 육사 시의 이해에 적으나마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